



경남탄생 100주년기념

"마산을 세계로, 연극도 세계로!"

'96

마산

국제연극제

'96 MASAN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 주최 : 마산시, 경남신문사, 마산문화방송, 국제연극연맹(IATA)마산지부
- 주관 : 마산연극협회, 극단 『馬山』
- 기간 : 10. 29 ▶ 11. 5 (공연시간 : 매일오후 3시, 7시)
- 장소 : 마산MBC홀, 마산 올림픽국민생활관 대극장
- 후원 :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연극협회

- 협찬 :  **조선맥주**  **한일합섬**

부산광역시

- 극 단 : 『부두연극단』
- 작품명 : 심청이는 왜 두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 작 가 : 오태석
- 연 출 : 천은경
- 대 표 : 이성규



대표/이성규



연출/천은경

작 품 줄 거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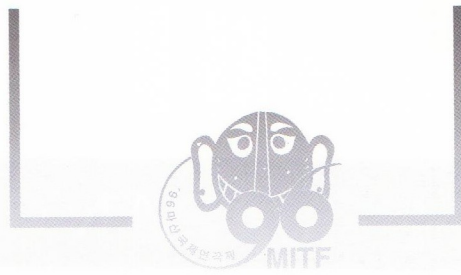
· 절망과 혼돈, 광기와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에 상경한 한 시골청년의 인생을, 고전의 심청전 설화를 혼합해서 잃어가는 순수과 양심을 우리라는 공동의 문제로 풀어나간 문제작 !

인당수에 빠진 심청이 용궁에 도착, 마침 용왕이 막 배달된 일간 신문을 보고 현대사회의 살인, 강간 등에 분개해 심청이와 세상을 구경하러 나선다. 미래를 보여주는 컴퓨터가 세상에서 심청이가 정세를 따라가게됨을 알려준다.

그들이 처음 당도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북적되는 번화가로 짐작되는 곳, 용왕이 신문에서 봤던 사건들이 일어날것 같은 음침하고 음란한 분위기, 가판원이 악을 써가며 프라이팬을 팔고, 이를 넘놓고 쳐다보던 용왕이와 심청이는 소매치기를 당할 뻔 한다. 이에 소리치던 가판원 정세명은 아킬레스건이 상하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나 마치 다리가 잘린 것처럼 고무로 감싸고 좌판을 밀며 시장바닥을 기어다니다. 이를 지켜보던 악당 인수는 그를 꼬드겨 화염병을 제조 판매라는 사업에 끌어들인다. 심청이는 정세명이 나쁜일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용왕의 지시대로 그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비닐 하우스에 가서 불을 지른다. 정세명은 그만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고 용왕은 경찰에 잡혀간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던 정세명은 병원에서 알게된 공매리기에서 힌트를 얻어 스스로 '인간타켓'이 되기로 한다.

정세명은 이제 백가면을 쓰고, 사람들이 던진공을 맞으며 가슴에 피를 토하는 놀이기구가 된다. 그런데 직장상사에 대한 화풀이로 공을 던지던 한 손님이 흥분하여 정세명을 도와주던 보조원을 살해하게 된다. 미칠듯이 절망하는 정세명에게 마침 형기를 마치고 나온 용왕이 새우잡이배를 타자고 제의한다.

다음 장면은 인신매매단이 횡행하는 군산부두이다. 용왕이 포주와 흥정하는 동안 순식간에 심청이도 어느 상자(인신매매된 여자들을 가두어 놓는 상자)속으로 끌려들어간다. 용왕은 여자들을 밀천삼아 섬을 돌며 매춘사업을 벌이려하고 이에 격분한 정세명이 용왕을 목졸라 바다에 빠뜨린다. 정세명은 여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스스로 납치범을 자처하며 기자회견을 요청한다. 그는 여자들이 포주에게 진빚을 갚아줄 독지가가 나타나 여자들을 구원해 줄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자의 손길은 뻗쳐오지 않는다. 외곡된 삶에 소박됨을 절감한 세명은 죽음에의 욕망으로 치닫고, 그는 절망적인 도박을 한다. 그래서 여자들은 하나 둘 바다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를 지켜보던 심청이도 바다에 뛰어든다.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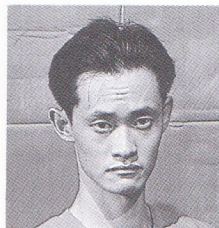
용왕/김종국



심청/박지혜



정세명/김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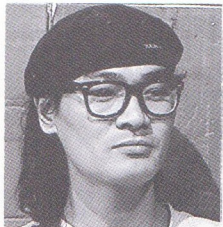
승지외/하현관



수사관외/오세원



손님외/류영운



인수외/김마리오



조타수외/이재홍



춘자외/문지연



길자외/정혜경



구자외/허금진



은실외/김혜숙



여자5외/손숙경



정순외/김성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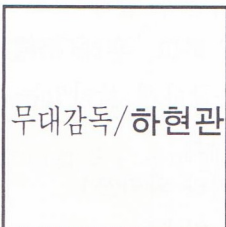


여자7외/조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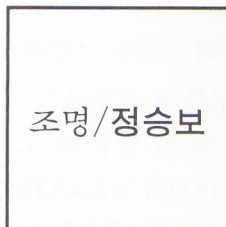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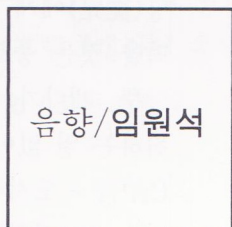
무대미술/장은영



무대감독/하현관



조명/정승보



음악/임원석

연당
소극장

문화공간 연당소극장

원작 / 오태석

제작 / 이성규

연출 / 천은경

심청이는 왜 두 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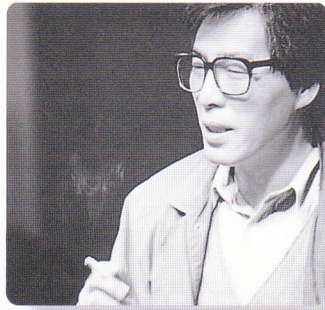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1996. 9. 16(월) ~ 10. 6(일) 26·27일은 쉼.

평일 7시30분, 토요일 4시·7시, 일요일 3시·6시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



이성규 ● 연당소극장 대표

연극만큼 짧은 시간안에 찼하게 여러 만남을 접하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연극을 하려면 우선 자아의 틀을 깨고 나와, 작품 속의 인물과 사건을 만나야 한다. 작품 속의 인물과 사건은 새롭게 해석된 삶이고, 가치있는 삶을 추구한다.

연극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속에는 사고 방식이 통하는 사람도, 협조자도 있지만 경쟁자도, 적대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종합예술이므로 무대미술, 음악, 무용, 의상, 분장 등 온갖 전문 분야와도, 노동과도 만나야 한다.

좋은 말로 만남이지, 실은 짧은 시간안에 온갖 풍상을 다 겪는다는 말이다. 그만큼 진하고 독하다(?).

연극을 처음하는 사람들에게 이 수 많은 만남은 힘겹고 고통스러웠을 게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이 무엇이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한계가 무엇이고 가능성이 무엇지를 느끼고 배웠으리라.

연극 작업에서 아름답게 만나려면 서로가 창조적으로 만나야 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만나야 한다. 편견과 아집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사적인 인간관계에 머물러서도 안된다. 노동을 통하여 찼하게 서로가 하나되어 가는 것,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다.

작품 '심청이는 왜 두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여름 내내 열심히 땀을 흘렸다. 아직 신인들이라 솜씨는 서툴지만 다들 재능이 있고 열정적이라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대표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게다.

우리는 아직 집단을 이루기에는 서로 너무 이질적이든지 지나치게 온정적이다. 그래서 소모적이다.

집단은 사전에 잘 준비된 조직과 계획을 가졌을때 가능하며 그 실행에 있어서는 일사불란 해야한다.

오기와 정열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따라야 한다.

또한 그것은 따뜻한 마음만으로 되는 것도, 따뜻한 마음 없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끝없는 노동을 위하여, 아름다운 만남을 위하여 고생한 단원들에게 건투를 빈다.

또 다른 탄생을 꿈꾸며 ...



천은경 ● 연출

사 기를 느낀다. 통증이 부쩍 심해진다. 진찰결과 아이의 상태가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분열증세를 보이는 아이는 희망-절망, 신념-희의라고 한다.

행동의 방향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은 결정된다고 한다. 나까지도 위험하다고.

※ 처방전 : 호흡 고르기, 명상하기, 걷기 운동

어머니가 항상 걱정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 “니가 정말 연극을 하고 싶다면 니 성격부터 바뀐야 할끼다. 엄마는 연극이나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밝은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니는 너무 어둡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세상속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니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연극을 제대로 할수 있을거라고 생각된다. 제발, 좀 밝아져라. 그리고 생각 좀 줄이고”

외관상 나는 별 걱정없고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인데도 어머니님은 걱정이 되시나 보다.

하지만 그 말씀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젊은 날의 대부분은 뭔가 회의적이고 어두운 사고들이 중점인건 사실이다. 그 무게속에 짓눌리는 고통이 있어야 나이를 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가치중심이 있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힘들지만 계속 증진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한다.

엄청난 모험수를 걸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대표님께 폐만 끼친것 같아서 걱정스럽다.

식구들과의 작업과정 속에서 생기는 마찰은 생각보다 컸고 또 조금씩은 상처를 입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 겨우 출발선상에 섰다고 생각하고, 또 가야할 길은 엄청나게 남아있다.

먼길을 같이 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이제 서로 밀고 끌면서 나가는 일만이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무모한 연출 밑에서 마음 고생한 배우들, 그리고 무대 일에 머리 빼개진 스태프들에게 말하고싶다.

이젠 정말 해 볼 만하지 않냐고.

참가 : 1. 가끔씩은 내가 심청이가 아닌가 생각도 했다. 또, 가끔은 세명이가 되고 싶었다.

2. 연극이어야 한다. 연극일 수 밖에 없고, 그래왔고, 그래야 한다.

현실 원칙의 억압과 검열 아래에서 ...

김미도 ● 연극평론가

시 심청이는 왜 두 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 심청이는 이 연극에서 주인공일뿐 아니라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무서운 현실을 ‘낯설게’ 보여주는 매개자이기도 하다. 심청은 끊임없이 ‘소외효과’를 생산한다. 따라서 우리는 심청이의 눈에 기이해 보이는 오늘의 현실을 새롭게 느끼는데 열중해 보자.

오태석은 이전의 <부자유친>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시 한번 통념의 전복, 역사의 뒤집기를 시도한다. 연극이 시작되면 컴퓨터로부터 고전 <심청전> 대로 심청이가 용궁에서 황후가 된다는 정보가 전해진다. 그러나 심청이는 살인, 폭력, 강간사건 등이 매일 신문에 보도되는 세상구경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사건을 접하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상한 용왕마저 악의 힘에 물들어 굶기야 여자들을 밀친 삼아 섬을 돌며 매춘사업을 벌이려 한다. 이에 격분한 또 다른 주인공 정세명이 용왕을 바다에 빠뜨린 뒤 여자들을 구원해 줄 독지가가 나타날 것으로 믿고 인질극을 벌이지만 눈물로 호소하는 여자들에게 구원자의 전화는 걸려오지 않는다. 절망한 여자들은 희생제물로 바쳐지고, 이를 보던 심청이도 희생제물로 자처하고 바다에 뛰어든다. 잠시 후 전화가 걸려 오는데 내용은 14세 6개월짜리 소녀가 자신도 그 대열에 끼어줄수 없느냐는 것이다.

모두 바다에 뛰어 내리기 위해 치마를 뒤집어 쓸때, 장면이 정지 되고 막이 내린다.

이러한 결말은 이미 비인간화의 끝으로 치달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쉽게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심청이의 맑은 눈에 비친 오늘의 세계는 돈이라면 사람 다치는 일도 불사하는 세상이며, 인간이 상품화되어 인간의 노리개가 된 세상이다. 한편 세명은 20세기 말의 한국 사회에서 순박한 인간미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기구한 인생유전은 곧 인간성 파괴의 한 극단을 보여준다. 그의 몸짓이 점점 필사적으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변해갈수록 객석에는 더 한층 연민과 자괴가 몰려오고, 무대에 낯자한 핏물은 그의 불행을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환원시킨다.

이 연극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극도의 잔악함과 무관심을 충격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극도의 비정함이 내포된 무대 메카니즘을 보여준다. 무절제한 소비성을 상징하는 상품 박스들, 컴퓨터화된 용왕의 조종실, 가스를 이용한 화재 장면, 인간 타깃의 오락장, 모터를 장치해 뿜어지는 핏물, 일그러진 물골의 인형들은 바로 물질주의와 비인간화로 황폐화된 오늘의 세계상을 집약시키고 있다. 또한 전통 연극의 미덕인 필연성이나 인과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시공의 초월, 우연한 인간관계, 일인다역, 논리적 맥락이 결여된 사건들의 연쇄, 사건의 심각한 비약 등, 통일성 없는 극의 진행이 관객의 의식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러한 혼란 자체가 혼돈의 세계를 인식하는 한 통로일 것이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보여주는 방법이 다분히 정신병적이다. 이러한 소우주 안에서 작가는 고전 <심청전>을 해체하여 심청이의 효성보다는 이기적 욕심에 따라 산사람을 매매하고 바다에 빠뜨린 사람들의 잔인성에 주목한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20세기 말을 민감하게 포착한 오태석은 과연 미래에의 희망마저 포기해 버린 것인가? 더 이상 보편적,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 상황을 인식하는 주체마저 자기 분열을 일으키는 시대에 그는 극한적 추함, 광기, 회의, 절망을 거쳐 정신분열증을 드러내면서 심청이의 두번째 희생을 무의미한 것으로 돌려버린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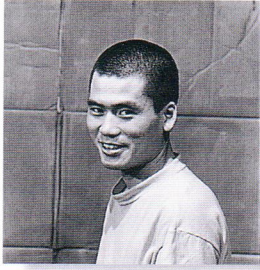
그러나 이 작품에서 결말에 보인 작가의 태도는 역설적이다. 그는 오히려 세계를 이토록 황폐화시킨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못질하면서 오늘날 인간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모든 질곡을 떨쳐버리고 심청이의 도덕성과 인간성으로 복귀할 것을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다.

꿈을 지향하는 생명력으로서의 욕망은 어떤 현실 원칙의 억압과 검열 아래서도 살아 바둥거리며 '불가능성'을 꿈꾼다. 인간의 삶을 삶답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불가능성'의 의미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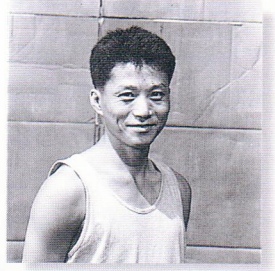
김종국

●
용왕



김도형

●
세명



박지혜

●
심청



김마리오

●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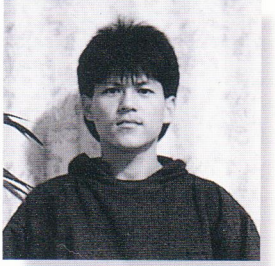
오세원

●
수사관/ 보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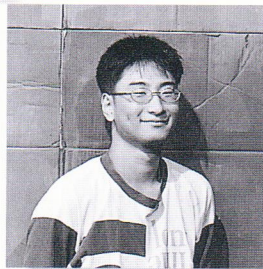
류영운

●
손님1,2/ 김상사



하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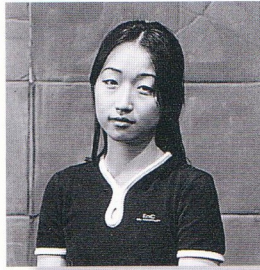
●
승지



이재홍

●
기관사





허금진

●
여자들



정혜경

●
여자들



문지연

●
여자들



김성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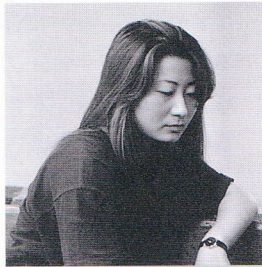
●
여자들



김혜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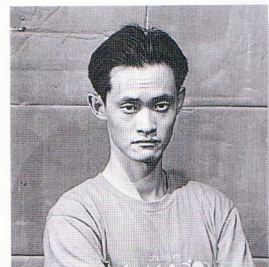
●
여자들

스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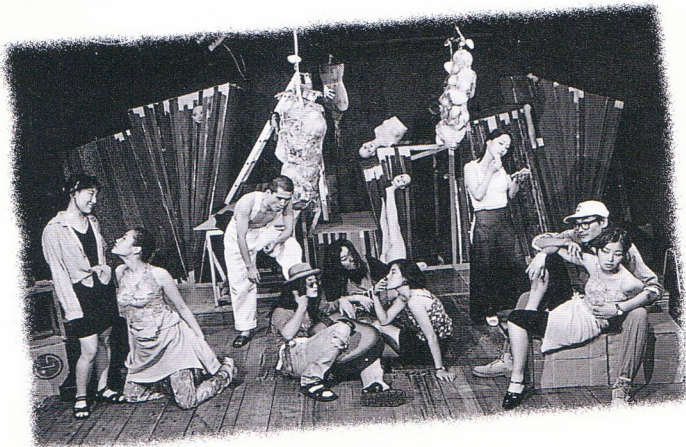
장은영

●
무대미술



하현관

●
무대감독



패러디와 패스티쉬 사이에서.

허정숙 ● 연당소극장 단원

오 태석은 '심청이는 왜 두번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가?'를 통해서 연극 커뮤니케이션의 돌풍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듯 하다.

작가의 텍스트가 던지는 복적대는 정보와 매우 다양하고 난해한 해석의 홍수 속에서 연출을 맡은 사람은 과감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시노그래피, 그것은 작가의 텍스트와 무대 이미지화한 기호와의 만남을 산출하는 작업이다. 여기 글로 쓰는 지상 시노그래피는 작가의 텍스트와 연출의 내적 이미지의 공통분모를 추출하여 하나의 논리로 즉, 개념화하는 일이라 하겠다.

먼저 텍스트에서 주요 인물을 불러내 보자. 텍스트가 인물을 통해 제시한 방법들이 극히 포스트모던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체의 재해체를 통해 패러디에게 패스티쉬까지 이르고 있다.

오태석은 이미 작가로서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포기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작가와 주인공과의 동일시는 작가의 관점을 투영하고 그것은 동시에 사실주의나 낭만주의나(혹은 이상주의)를 가르는 명확한 분기점이 된다. 이미 작가가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포기했다면 사실주의적 기법을 포기한 셈이다. 또 하나의 주요 문제점은 어느 인물이 가장 작가에 가까우나 혹은 누가 가장 '내노라' 하는 인물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세 인물을 가지고 실험해 보자. 즉 용왕, 심청, 세명.

먼저 작가가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포기했다면, 가장 브레히트적인 인물인 용왕을 떠올릴 수 있다. 용왕은 '바라보기' 역의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세상을 내려다 본다. 선도 악도 모두. 그러나, 선과 악에 간섭하지 않는다. 단지 절대적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전통적으로는 그 인과응보적 산물들을 법칙에 맞게 제어하는 인물일 뿐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전통적 수식을 깨뜨리고 만다. 바라보고만 있던 세상 - 연극 속에서 벌어지는 부패한 자본주의 사회 - 에서 가장 악랄하고 역겨운 역을 뺏아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용왕의 인신매매 장면은 우주악의 거대한 숲을 휘젓는 악마적 주걱처럼, 연극의 반동인물로서는 최고의 주역인 셈이다. 그렇다면 용왕은 브레히트의 소위 '낮설게 하기와 아르토의 '우주의 중심' 이론의 재통합에서 형성된 인물이다. 연극론의 거대한 혼돈을 표상하는 인물이다.

우리는 용왕을 통해 작가의 광적 기질 - 그것도 편집증과 분열증이 합치되는 것을 본다. 편집증이 원심력적이라면 분열증은 구심력적이다. 편집증이 미시적이라면 분열증은 거시적으로 상호 반대의 방향성을 가진다.

용왕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실제 무대 시간의 해체, 공간의 해체를 불러 일으킨다. 용왕에 대한 이러한 혼돈으로 작품의 시계는 상당히 어두운 편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객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다른 희망이라고나 할까? 심청이, 그렇지. 심청이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심청이를 데려왔을까? 또 심청은 과연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삼단계로 분석해 보자.

문제 1.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졌다'의 통사론적 의미?

- 심청이는 인당수라는 바다에 빠졌다.

문제 2.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졌다'의 의미론적 의미?

- 심청이는 댓가를 받고 희생을 치렀다.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문제 3. '심청이는 인당수에 빠졌다'의 화용론적 의미?

- 심청이는 댓가를 받지 못하고 희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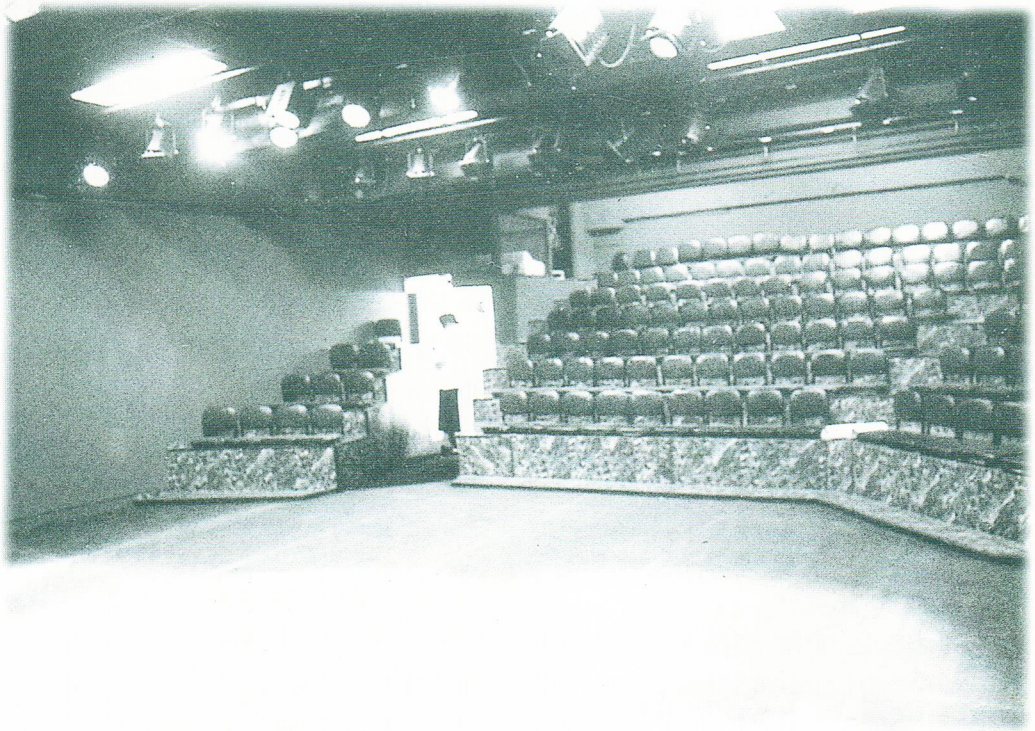
즉 이 작품에서 심청이의 행위는 가치와 의미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그녀의 희생은 아무도 구원해 내지 못했고, 심청전이 만들어질 만큼 소문도 나지 않았을 뿐더러, 덤으로 받았던 황후직도 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심청의 주요 모티프는 무엇이란 말인가? 용왕을 쫓아 세상으로 나올 때의 조건을 잠시 상기해 보자. 그것은 심청의 세상구경이다. 다만 구경만 한다는 조건. 용왕은 구경만 하지 않을 때, 세상에 뛰어 들 때의 위험에 대해서 심청에게 충분히 경고한다.

용왕은 그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다. 심청에게 경고하지만, 자신도 세상 속에 휩쓸리고 만다. 이쯤되면 모든 전통적인 주제의 흥미는 끝장이 난 셈이다.

작가도 오리무중에 빠진 셈이다. 텍스트를 던지고 바로 무대 위로 올라 앉았다. 정세명이라는 인물이 쭉그리고 있다. 세명은 전통적 윤리도덕을 잘 지키려 애쓰는 인물이다. 술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순종적이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회의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명이 가진 순종의 미덕은 자신을 마조키즘적 오락장치로 전락시켜 버리고 만다. 순종의 마조키즘적 저지대로 가라 앉는 순간이다. 그것은 환상이었다. 그러나, 세명의 마조키즘은 사실은 새로운 공격성에 눈뜨게 하는 장치였다.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한 손님 때문에 그의 동료가 죽게 되자, 그의 마조키즘은 광포한 공격성으로 돌변한다. 이미 최대 악마적 역할을 부여받은 용왕을 살인까지 하게 되고, 인신매매선의 새로운 영웅이 된다. 정세명은 인간팔기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동원한다. 그러나, 더럽게나마 살수 있을 꽃다운 여자들을 하나하나 죽일 핑계만 만들어 낸 셈이다.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 게다가 그는 절대적 존재인 용왕조차 죽이고 만다. 용왕살해는 더욱 거대한 혼란만을 야기시킨 격이 되고 만다.

이렇게 세 인물의 패스티쉬는 무대를 광포하게 휩쓸어, 관객은 이 세 명 모두에게 역겨움을 느낀다. 마치 살인 행위의 현장검증에서 피해자나 가해자나 경찰이나 그 어느 쪽의 정서에도 가담하지 않듯이, 관객들은 희한한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 뿐이다.

극장 전경



연당소극장은 다양한 문화 행사는 물론이고
 각종 공연 및 시민들의 모임·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문화 공간입니다.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대관료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
오전	5만원	7만원
오후	5만원	7만원
야간	10만원	12만원
총계	20만원	26만원





모 집합니다.

단원모집

모집대상 :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녀
모집기한 : 수시모집

모집분야 : 연출, 조명, 연기,
음악, 미술, 장치, 의상, 분장
(각종 예술분야 특기자 및 전공자 우대)

관심 있으신 분은 연당 소극장으로 개별 문의 바랍니다.
대표전화 556-2232

후원모집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의
동래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 연당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후원회원은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에서
초대권과 안내자료 일체를 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 후견인을 모집합니다.”
소극장의 안정된 작업과 존속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최하는 모든 공연 및 행사의

후원인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후원금은 동남은행 018-11-004-721 (예금주 : 이성규)로 온라인 해 주시고
극장전화 556-2232로 연락주십시오.

공 연 안 내

김보영 현대무용

1996. 9. 24 (화) PM 8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 051-759-3250

